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4월(제70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오이타현청 국제정책과 소개 2022년 국제정책과 일동 인사드립니다! 오이타현



三股 耕二
과장 **미마타 코지**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내일은 빛이 찾아오리라 믿으며 여러분과의 '인연'을 소중히 하고 교류 및 인재 육성, 공생을 위한 정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井川 浩昭
참사(총괄) **이카와 히로아키**

- 여권 심사 총괄
- 여권반 인재 육성



阿南 大輔
과장보좌(총괄) **아나미 다이스케**

- 해외 전략 추진(총괄)
- 과 인재 육성



山崎 基広
주간 **야마사키 모토히로**

- 해외 전략 추진
- 유학생 취업, 창업 담당



清田 弘祐
주사 **기yota 코스케**

- 외국인 인재 수용 및 공생 업무 (현 내 재류 외국인 지원)
- 도비타테! 유학 JAPAN 담당



村上 美夕紀
주임 **무라카미 미유키**

- 여권 심사 및 발송
- 여권 업무 위탁
- 여권반 예산 담당



安部 舞
주임 **아베 마이**

- JET 프로그램 / 국제교류원 담당
- 유학생 장학금 담당



伊藤 弥生
주임 **이토 야요이**

- 외국인 종합 상담 센터
- 홍콩 페어 / 예산, 결산, 감사 담당



沢田 沙依
주사 **사와다 사에**

- 아시아 비즈니스 연수회
- 일본어 파트너스 / 태국 MOU 담당



盧知榮
한국 국제교류원 **노지영**



Austin Vaughn
미국 국제교류원 **오스틴 본**



Swara Fife
영국 국제교류원 **스와라 파이프**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4월(제70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새로운 오이타현 해외 전략이 수립되었습니다!

오이타현 해외 전략 수립 오이타현

오이타현은 지난 2019년 3월에 수립한 ‘오이타현 해외 전략(2019~2021)’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기업 경영인과 전문가 등 해외 전략 어드바이저로부터 조언 및 제언을 받아 2024년까지 시행할 새로운 해외 전략 ‘오이타현 해외 전략(2022~2024) : Be on the Offensive’를 수립했습니다. 이번 전략에는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감소 진행에 따라 외국인 인재 수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기존의 네 가지 중심 정책에 새로이 ‘다문화 공생 추진’을 중심 정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전략을 기반으로 현 내 생산품의 수출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해외 관광객 유치, 유학생 현 내 취업 및 창업·다문화 공생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MOU(우호 교류와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등을 활용하여 현 내 기업이 해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오이타현 해외 전략(2022~2024)’ 전문은 오이타현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www.pref.oita.jp/soshiki/10140/kaigaisenryaku2022-2024.html>

〈해외 전략 중심 정책〉

- 전략1. 해외의 활력을 수용합니다.
- 전략2. 해외 인재 및 기술을 수용합니다.
- 전략3. 다문화 공생을 추진합니다.
- 전략4. 국제 교류 및 공헌을 추진합니다.
- 전략5. 국제 인재를 육성 및 활용합니다.

계속해서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1 우스키 석불 총선거 우스키시



‘우스키 석불(臼杵石仏)’은 헤이안(平安)시대부터 가마쿠라(鎌倉)시대에 걸쳐 만들어진 국보 지정 마애불 61좌(座)를 말합니다. 표정이 다양한 불상들은 보는 이의 마음도 평온하게 해 주는 걸작인데요, 이 마애불을 주제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국보 우스키 석불 아름다운 불상 총선거(国宝臼杵石仏 美仏総選挙)’가 열렸습니다.

입후보한 석불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최애 석불’을 고르는 이번 선거에는 61좌의 마애불 중 9좌의 석불이 공약을 내걸고 출마했습니다. 총투표수 9,057표 중 ‘작지만 우주를 짊어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공약을 내세운 ‘다이니치 여래좌상(大日如来座像)’이 가장 많은 득표수를 차지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석불의 왕관이 멋지다.” “석불의 평온한 표정에 힐링 됐고 에너지를 받았다.” “주위를 밝게 비추어 줄 것 같다. 예전에 왔을 때 가장 기억에 남은 석불이었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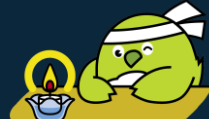
이번 총선거를 통해 ‘다이니치 여래좌상’ 총리를 필두로 다른 8좌의 석불 장관들은 ‘제1차 아름다운 불교 정부’로서 출범했습니다. 각 장관의 선거 공약 내용은 ‘국보 우스키 석불 아름다운 불상 총선거’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총리와 장관을 직접 만나고 싶으신 분은 우스키에 방문해 주세요!

‘국보 우스키 석불
아름다운 불상 총선거’ 홈페이지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4월(제70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난공불락의 성터에서 희대의 명곡을 쓴 천재 작곡가

오카 성터 & 다키 렌타로 다케타시

春高樓の花の宴 봄날 고루의 꽃의 향연

めぐる盃かげさして 도는 술잔에 그림자 비치고

千代の松が枝わけいでし 천년송 가지 사이로 비치는

むかしの光いまいずこ 그 옛날의 빛은 지금 어디에

- 일본 가곡 '황성의 달(荒城の月)' 가사 中 -

1185년에 축성하여 분고국(豊後国) 일족이 머물고 1594년에 높은 석벽을 이용하여 근세 성곽으로 개축되며 오랫동안 '난공불락의 성'으로서 위세를 떨쳐온 '오카성(岡城)'. 그러나 1874년 메이지(明治) 정부가 단행한 통칭 '폐성령(廢城令)'에 의해 성의 건물은 모조리 해체되고 만다.

시간은 흘러 1901년, 다케타에서 잠시 생활하던 한 소년이 황량한 성터만이 남은 이곳을 자주 찾았는데, 그는 훗날 이곳을 모델로 지금까지도 일본인에게 사랑받는 희대의 명곡 '황성의 달(荒城の月)'을 작곡한다. 그의 이름은 '다키 렌타로(瀧 廉太郎)', 만 23세에 요절한 젊은 음악가이다.

오늘은 이 이야기의 배경인 오이타현 남서부에 위치한 다케타(竹田)시 소재의 '오카 성터(岡城跡)', '다키 렌타로 기념관(瀧廉太郎記念館)' 그리고 오카 성터의 관련 자료가 전시되어 있는 '다케타시 역사문화관·유학관(竹田市歴史文化館・由学館)'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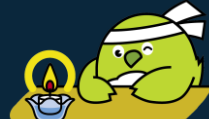
오카 성터는 오이타역에서 JR을 타고 약 1시간 30분을 이동한 후 분고타케타(豊後竹田)역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갈 수 있다. 오카성은 산 위에 위치한 산성(山城)이라 오르기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등산을 매우 싫어하는 나도 무난하게 오를 수 있었으므로 천천히 올라 보자. 성터에 도착하면 보이는 뽕뚝린 풍경과 푸르른 나무들, 그리고 조용히 들려오는 새소리가 만드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여러분을 맞아 줄 것이다(성터의 분위기가 너무 평화로워 같이 간 영국 교류원은 잠시 명상을 할 정도였다).



사실 오카 성터는 '벚꽃 명소 100선'으로 선정되어 봄이 되면 많은 이들이 찾는 장소로 코로나19 이전에는 매년 벚꽃 축제도 개최되었던 곳이다.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추어 방문하면 일본 왕벚나무 '소메이 요시노(ソメイヨシノ)'를 중심으로 산벚나무, 겹벚나무 등 약 450그루의 벚나무가 흐드러지게 벚꽃을 피우는 광경을 볼 수 있다. 내가 방문했을 때는 꽃이 이미 지고 있었지만 성터의 분위기와 흠날리는 벚꽃잎이 생각보다 잘 어우러져 매우 아름다웠다.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4월(제70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오카 성터를 천천히 산책한 후 다케타시의 성하 마을에 위치한 다키 렌타로의 생가(기념관)를 찾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렌타로는 오카 성터에서 영감을 받아 희대의 명곡 ‘황성의 달’을 쓴 작곡가로, 그가 잠시 살았던 이 곳에는 생전에 그가 사용했던 악기가 전시되어 있으며 그의 생애를 알 수 있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기념관에서 특히 좋았던 장소는 뒷마루 ‘엔가와(縁側)’인데, 대나무가 보이는 뒷마루에서 간간이 들려오는 새소리를 들으며 따스한 햇살을 받고 있자니 마음이 너무나도 평온해졌다.



다키 렌타로 기념관에서 약 200m 거리에 위치한 ‘다케타시 역사 문화관·유학관(竹田市歴史文化館・由楽館)’에서는 다키 렌타로를 포함하여 다케타시와 인연이 있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으며, 오카 성터의 역사를 담은 애니메이션이나 성터 모형 등도 볼 수 있다. 오카 성터에 대해 보다 깊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므로 일본어가 가능하다면 방문해 볼 것을 추천한다. 차분하게 자연과 역사를 즐길 수 있는 멋진 마을, 여기는 다케타이다.



- 오카 성터(岡城跡)

주소 : 竹田市竹田2889(〒878-0013)

문의 전화 : 0974-63-1541(일본어 대응)

운영 시간 : 09:00~17:00

입장료 : 고등학생·성인 300엔 / 초·중학생 150엔

- 다키 렌타로 기념관(瀧廉太郎記念館)

주소 : 竹田市竹田2120-1(〒878-0013)

문의 전화 : 0974-63-0559(일본어 대응)

관람 시간 : 09:00~17:00

입장료 : 고등학생·성인 300엔 / 초·중학생 200엔

- 다케타시 역사문화관·유학관 (竹田市歴史文化館・由学館)

주소 : 竹田市竹田2083(〒878-0013)

문의 전화 : 0974-63-2200(일본어 대응)

관람 시간 : 09:00~17:00

입장료 : 고등학생·성인 500엔 / 초·중학생 300엔

[추천 꿀팁!]

‘성하마을 패스포트(城下町パスポート, 고등학생·성인 800엔/초·중학생 500엔)’를 구매하면 위 시설을 포함한 총 다섯 시설을 저렴하게 관람하고 성하마을 소재 가게 방문 시 작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케타시 관광 투어리즘 협회 ‘다케타비(たけ旅)’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기 바란다.

<https://taketa.guide/topics/detail/7856a866-18f8-4250-8451-99f70a154c1f>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4월(제70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노지 in 오이타

15화

<특집> 노지와 술  ②

* 본 만화는
개인의 경험담으로
음주를 권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날은 학교 기숙사 입사날로,
처음으로 부모님의 곁을 떨어지게 된 날이었다.



낮에는 짐을 풀고 저녁에는 처음으로
대학 입학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과
술을 먹기로 한 날이었는 데



다들 대입카페에서 만나 살제로 서로를
보는 건 처음이어서 자기소개부터 해가며
어색하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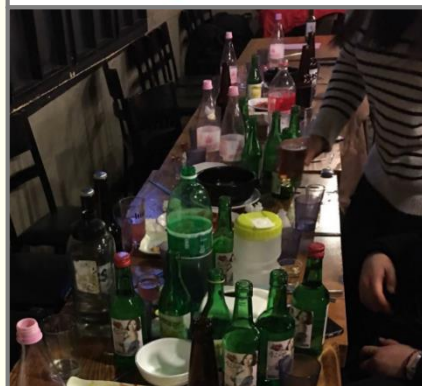
그러나 술을 취기가 오르기 시작하자
다들 텐션이 높아져갔고 화룡정점으로
술게임을 하며 분위기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여전히 술은 쓰고 맛이 없었지만
함께 술을 마시고 다같이 취해서
왁자지껄 떠들며 놀았던 그 순간은



꽤나 즐거웠기에 아주 조은,
왜 술을 먹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2
왁자지껄
대화장
새내기 술자리...